소통·연결·창조의
Communication · Connection · Creation
신강진

K-Culture의 원조
천년 비취빛 고려청자 고장
강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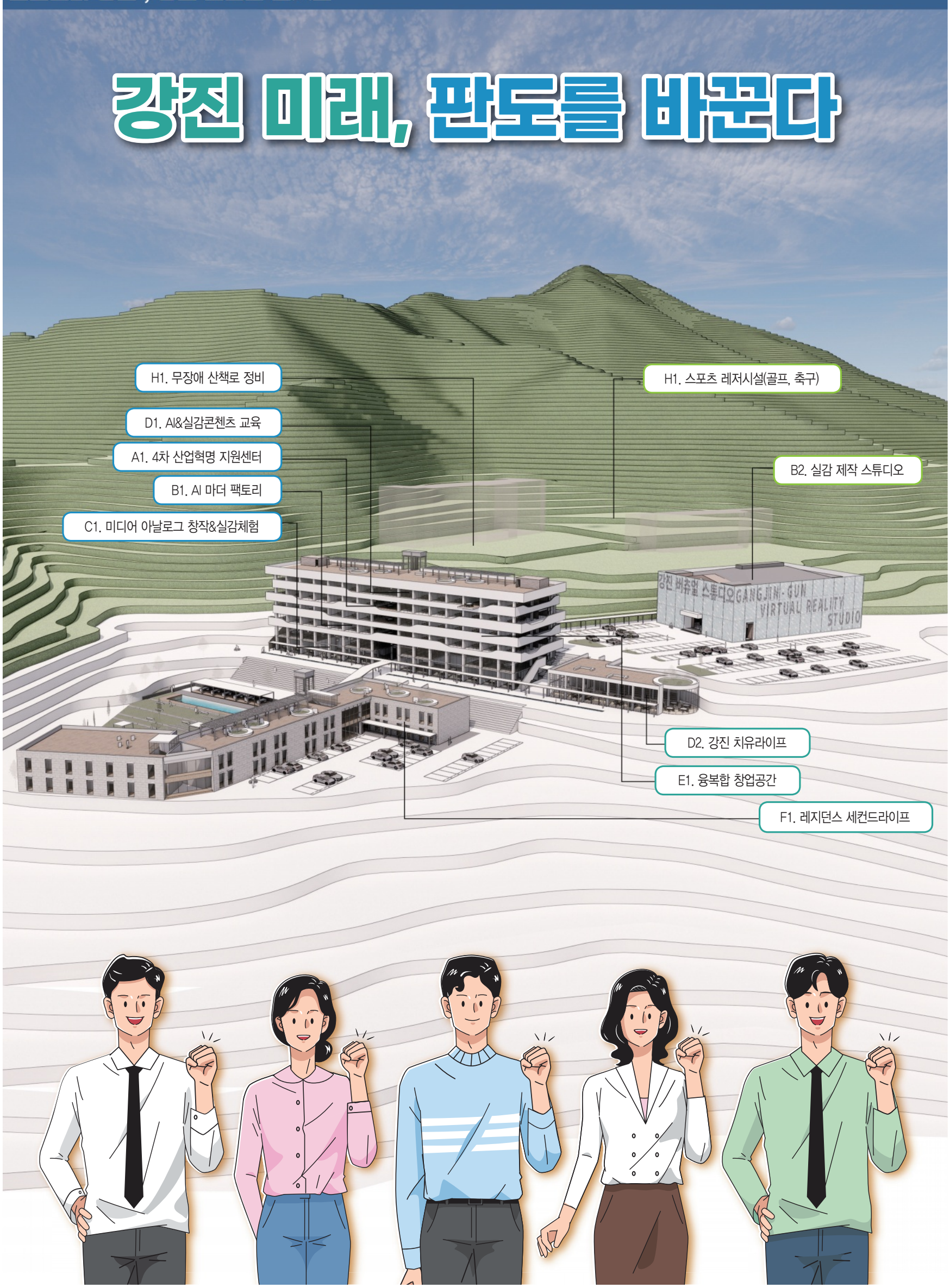
2023년 가을호 Vol. 32 www.gangjin.go.kr 2023년 9월 22일

“가고 싶은 섬 강진 가우도”

슈우욱~, 허공 속 바람을 가르며 바다를 가로지른다. 강진에 오면 반드시 그 느낌에 반하는 것이 있다. 짚트랙이다. 25m 높이의 세계 최대규모 강진 가우도 청자타워. 여기에 해상 공중하강체험시설인 짚트랙에서 물결 건너 대구면 저두마을까지 30초 남짓 횡단한다.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강진군의 랜드마크중 하나다. 길다고 소문난 이번 추석 연휴, 한 번 들러 멋진 스릴에 안겨 보자.

천년문화 강진 , 청년 글로컬 플랫폼

강진 미래, 판도를 바꾼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선정 330억 원 확보, 성화대학 탈바꿈 4차산업혁명 핵심 기지로 거듭나

강진의 미래 판도를 바꾼다.

강진군은 지난 7월 전남도가 주관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천년 문화 강진, 청년 글로컬 플랫폼'이 최종 선정돼, 도비 180억원 등 총 사업비 330억원을 확보했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시·군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연구 정책을 제안하도록 해 가장 우수한 프로젝트를 제시한 시·군에 예산을 대폭 지원하는 획기적인 제도다. 지난해 12월, 김영록 전남지사가 처음 도입했고 첫 주인공으로 강진군이 최종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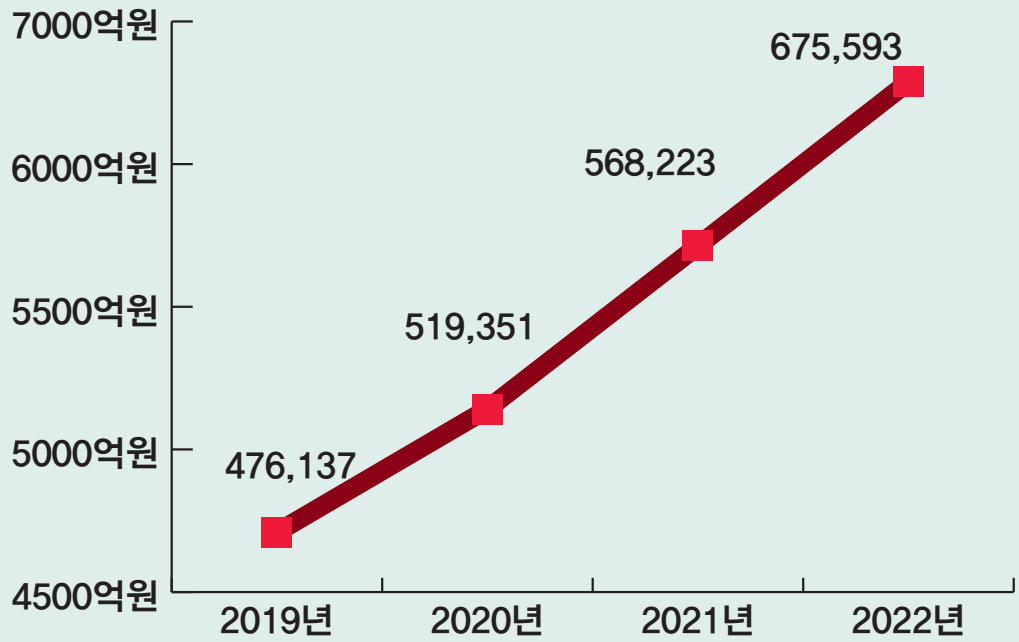
군은 확보된 총사업비 330억 원을 투입해, 폐교된 성화대학을 리모델링해 4차산업혁명 핵심 거점 기지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및 실감 콘텐츠 기업과 연계해 청년창업 지원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300프로젝트 주요 사항

공모명 : 천년문화 강진, 청년 글로컬 플랫폼
사업비 : 도비 200억원 포함 330억원
사업기간 : 2023년~2026년
유치경쟁 : 20개 시군 경합
공간 : 옛 성화대 리모델링
목표 : 4차산업혁명 핵심 거점 기지
내용 : 인공지능·실감콘텐츠 기업 연계
청년창업 지원 공간으로 탈바꿈

계획안에 따르면 ▲최첨단 기술 교육을 통한 청년 일자리 마련에 54억원 ▲영화, CF 촬영용 복합 스튜디오 구축에 57억원 ▲지역 기반의 미디어아트 구축에 53억원 ▲청년 창업가를 위한 공간 구축 및 창업 교육에 36억원 ▲강진의 한정식과 사찰음식 세계화에 22억원 ▲예비 귀촌인과 창업가 등 동시 1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레지던스 구축에 60억원 ▲4차산업혁명지원센터 구축에 41억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강진예산 7000억 시대로 간다!



강진군 예산 추이 〈단위:백만원〉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야 산다

신규마을 1,000세대 조성·임천지구 가시화
빈집 리모델링 1,000세대·주택신축 3,000만원
주거비 3,000만원·일자리 지원 2,000만원

강진군은 현재 정주 인구 유입과 증가를 위한 신규마을 주택 1,000세대 조성, 빈집 리모델링 1,000세대, 주택신축 지원, 귀농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신규마을 1,000세대 조성

강진군 강진읍 임천지구에 강진군과 전남개발공사가 325억원을 들여 150세대의 신규마을을 조성한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4년이다.

올해 안에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내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다. 2025년 기반공사와 택지 분양에 이어 2026년 건축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더불어 강진군은 신규마을 대상지를 발굴하고 관련 사업을 꾸준히 진행한다.

강진읍 목리와 신풍, 학산, 군동면 호동, 오산, 칠량면 강동, 대구면 백사, 마량면 숙마, 연동, 도암면 봉황, 신평, 신전면 논정, 부춘, 성전면 랑동, 처인, 원기, 상월, 월남, 작천면 용정, 병영면 신지 등 모두 10개 읍면 20개 마을 541세대다.

◇빈집 리모델링 1,000세대 조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강진군이 빈집 정비, 리모델링에 적극 나섰다.

빈집을 강진군에 임대하면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빈집을 리모델링해 전입을 희망하면 군에서 지원한다.

우선 강진군에 빈집을 갖고 있으면서 이 집을 강진군에 임대하면 리모델링 비용 장기임대와 단기임대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한다. 장기임대 5년은 5,000만원을, 7년은 7,000만원을 지원하며 단기임대는 5,000만원을 지원한다.

임대조건은 장기의 경우 강진군과 5년 또는 7년 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단기는 강진군과 6년 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6년 계약기간 중 연간 10개월은 군이, 2개월은 소유주가 소유한다.

군은 창호, 도배·장판, 방수, 외벽 단열, 화장실 등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지원한다.

공고일로 부터 1년 이내 강진군에 전입했거나 전입예정인 관외 거주자가 빈집을 직접 리모델링해 전입을 희망하면 리모델링 비용 50%, 최대 3,000만원까지 군에서 지원한다.

임천치구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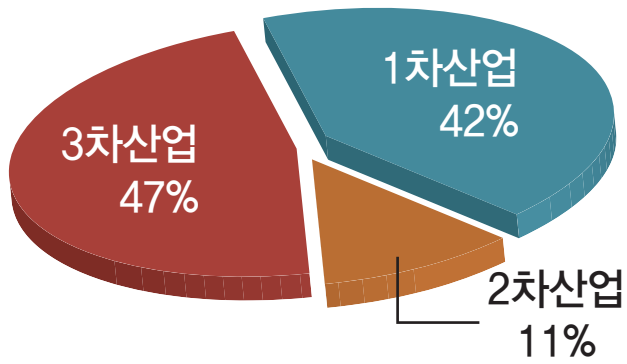
더불어 강진군은 주택 신축에도 3,000만원을 지원하고 융자 지원에도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

◇귀농·귀촌 지원사업

귀농정착보조사업이 있다. 농업 창업 및 영농기반 마련을 위해 농기계 구입, 농업용 창고, 축사 신축을 지원한다. 10개소를 대상으로 65세 이하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여야 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때 융자를 해준다.

농업창업은 1.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3억원 한도 이내다. 주택은 1.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7,500만원 한도 이내다.

4차산업, 1차·3차 뒷받침 '이륙'



강진군은 '강진호' 라는 비행기로 정해 맨 앞 레이더는 500만 관광객 유치가 이끌고 양 날개의 엔진은 1차 산업과 3차 산업으로 삼으며 4차 산업혁명의 활용이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구조로 이를 통해 신강진 시대를 향해 이륙하며 군민의 행복을 실현하고자 한다.

마량항 낚시어선 유치 가속도

'500만 강태공을 잡아라'.

강진군이 바다낚시 어선의 지역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크게 늘어난 낚시꾼들이 강진의 항구에서 배에 타도록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강진군이 바다낚시 어선을 마량항으로 유치한 뒤 강진을 찾는 낚시꾼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6월 40명이었던 마량항 이용 낚시꾼은 지난 7월 1,206명, 8월에는 1,271명으로 급증했다.

낚시꾼들은 배에 타기 전 항구에서 식사를 하거나 낚시에 필요한 물품과 도시락 등을 사기 때문에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를 통해 지난 7월부터 마량항으로 선적항을 옮긴 낚시어선은 8척이나 된다. 마량항 인근 식당과 카페, 편의점 등도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강진군은 마량항 주변 상권을 자체 조사한 결과 낚시어선 유치 이후 4억8,000만원 상당의 경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군은 내년에는 20대의 낚시어선을 추가로 유치한다는 목표다.

강진군은 바다낚시 어선유치를 필두로 남해안 거점 해양관광레저도시로 만들 예정이다.

강진 전역이 명소
영암군
군서면
월출산국립공원
강진다원
월출산 탐방 인프라 조성
월출산권역 관광명소화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월남제)
광주~강진 고속도로
옴천면
옴천 구절초단지·토하특구조성
전라병영성
하멜기념관
작천 꽃단지 조성
전라병영성 복원
하멜촌 조성
병영면
병영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병영 생태관광도시 조성
유치면
부산면
학산면
성전면
작천면
목포~광양 고속도로
(구)성화대 300프로젝트
강진작천IC 설치
강진산업단지
강진 제2일반산업단지 육성
까치내재 터널 개설
보은산 수국길 조성
강진 삼십리벚꽃길 조성
보은산 테마공원 조성
강진읍 미(美)프로젝트
신규마을조성
도시재생 인정사업
파크골프장 조성
군동면
남미륵사 꽃 축제
장흥군
계곡면
영랑생가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강진읍
강진천 지방하천 정비
강진만 생태공원 종합개발
지방정원 조성
강진만생태공원
마산면
군도3호선 확포장 공사
백련사
다산박물관
다산초당
국도23호선 4차선 확장
초당림
강진만 노을경관 자원화
칠량면
국도 18호선(도암~옥천) 개량공사
강진만 해양레저단지 조성
전남인재개발원
애절양 공원 조성
도암면
전국최고 화훼생산단지 조성
칠량 봉황 어촌뉴딜
다산베아채
가우도 종합개발
저두지구 관광편의시설 조성
가우도
가우도권 어촌뉴딜
주작산 자연휴양림
분홍나루 노을공원 조성
대구면
주작산 휴양림 레포츠 파크조성
지역형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고려청자박물관
한국민화뮤지엄
귀농귀촌 주택단지 조성
청자골 공원화사업
강진만 패류메카 조성
마량면
사초 오토캠핑장 조성
바다낚시어선단
마량 서중항 어촌뉴딜
마량항(국가어항) 정비
마량 미항
삼산면
북일면
북평면
군외면
대덕읍
관산읍
용산면

쌀귀리 특구 지정 탄탄대로

농가 판로 개척 전환점 마련
475억원 투입 유통센터 구성
하멜촌 맥주 공장 내년 건립

강진군이 올해 '쌀귀리 융복합 산업특구'로 지정돼 쌀귀리를 널리 알리고 쌀귀리 생산농가들의 판로를 개척하는데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

강진쌀귀리 융복합 산업특구는 도로교통법 외 5개의 규제로부터 특례가 허용된다.

군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쌀귀리 종합가공 유통센터 구성과 재배면적 확대, 지역축제 및 관광 연계 4개 분야 12개 사업 총 475억 원을 투입한다.

군은 현재 쌀귀리 900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3,042톤으로, 이는 전국 대비 64% 수준이다.

쌀귀리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4℃ 이상을 유지하는 온난한 기후가 필수 조건으로, 군은 1월 평균 온도가 1.4℃를 유지해, 쌀귀리 재배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군은 2006년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쌀귀리 2ha 재배를 시작으로, 2022년 기준, 290여 농가에서 838ha를 계약 재배해, 쌀귀리 전국 최대 주산지로 거듭났다.

강진 쌀귀리는 품질면에서도 우수해, 그동안 농촌진흥청 원원종을 보급하는 보급종 증식용 채종포를 운영하고, 우량종자 60톤을 생산 농가에게 보급함과 동시에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환경 조성으로, 우수한 쌀귀리 품질을 유지해 왔다.

특히, 올해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종자 보급지역으로 선정돼 5ha(20톤), 2024년에는 10ha(40톤)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특구운영과 김정하 사무관과 한국정책전략연구원 김옥중 지역특화발전연구소장에게 자문을 구하고, 쌀귀리 특화사업 간소화 및 보완 작성을 위해 세종시 중기부에 수 차례 방문했다.

강진군은 경쟁력을 갖춘 강진 쌀귀리가 특구 지정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쌀귀리 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 내년에는 강진에 하멜촌 맥주 공장을 짓고 지역 매출을 올려 남도답사 1번지에 기여하며 이름값을 더욱 높인다.

강진한우 1등급 출현율 더욱 높인다

한우개량, 우량 송아지 생산 등 지속 지원
출하 6개월전 대두박 첨가로 출현율 향상
육성·조사료 생산 등 45종류 92억원 투입

강진군이 강진한우 1등급 출현율 높이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강진군은 한우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한우 등급률 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출하 6개월 전부터 발효대두박을 하루 300g씩 사료에 첨가해서 먹이면 1등급 출현율 향상 및 소득증대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건의에 따라 내년 신규사업 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등급률 향상을 위해 4억 원을 확보해 증체율을 향상시키고, 미네랄블록 등 5종의 보조사료를 지원했다.

한우 개량과 등급률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한우 유전체 검사 컨설팅, 저능력 암소에 대한 도태 장려금 등 한우산업 육성과 조사료 생산에 총 45종류의 세부 사업에 9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했다.

이외에도, 한우 가격 하락 및 각종 수급불안 상황에 대비해 한우 농가 경영비 절감사업 등 다양한 한우산업 정책을 발굴중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한우 개량, 우량송아지 생산, 한우 등급율 향상, 조사료 생산 등 한우산업 육성과 농가 경영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석 선물도 강진산으로

강진묵은지–위생, 품질, 맛 인정 '최고
생표고버섯–단백질, 지방질, 당질 풍부
호평–18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쌀

강진산 농수특산물은 평소에도 인기가 많다. 이에 힘입어 추석선물로도 딱 맞춤이다.
깨끗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일조량으로 전국 최고의 품질을 갖춘 강진산 쌀귀리 가공식품이 소비자들에게 입소문을 타면서 추석 명절 선물로 인기몰이 중이다. 전국 생산량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강진 쌀귀리 고추장, 선식, 분말 등 다양한 제품으로 건강도 챙기고 요리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풍성한 명절 보내기에 강진 쌀귀리를 강력 추천한다.
다음은 100% 국내산인 강진묵은지다.

강진묵은지는 위생과 품질, 맛을 인정받아 한번 구매한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재구매해 현재까지 지난해 총 매출액의 75%를 달성하는 등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세 번째 명품은 신선함이 가득한 강진 청정 '생표고버섯' 이다.
표고버섯은 봄, 여름, 가을에 걸쳐 참나무, 서나무, 밤나무 등 활엽수에서 자라며 예로부터 맛이 뛰어나 송이, 능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3대 주요 식용버섯으로 알려져 있다.

2006년부터 18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쌀로 선정된 쌀 '프리미엄 호평' 도 관심이 높다.
더불어 강진산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 연근, 전통 장류, 지주식 김, 토하젓, 황칠, 여주, 아스파라거스 등이 고객들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가장 성공한 관광대표 브랜드 '푸소'

무려 5만3,000여명 참여
농가 직접 수익은 47억원
시즌2로 이젠 세계로 간다

전남 강진군에서 가장 성공한 관광정책을 꼽으라면 단연 '푸소(FU-SO)' 다. 봄, 가을이면 푸소체험을 온 학생들로 북적인다. 휴가철에는 직장인들이 푸소 농가에서 일주일을 머물며 삶의 여유와 위로를 얻는다. 푸소는 어느새 강진을 대표하는 관광 브랜드가 됐다.

푸소(FU-SO)는 Feeling-Up, Stress-Off의 줄임말. '덜어내시오' 라는 뜻을 가진 전라도 말로 강진에 와서 '몸 푸소, 마음 푸소' 라고 쓰기도 한다.
2015년 5월 첫 문을 연 푸소체험은 2023년 8월말까지 5만3,000명이 참여했다. 기간 중 푸소 운영농가 직접 수익은 47억 원에 이른다.

침체된 농촌에 활기를 불어 넣고, 머물다 가는 관광객을 확대하겠다는 각오로, 일본 오이타현 아지무정에 벤치마킹을 다녀온 지 9년. 아지무정의 그린투어리즘을 롤 모델 삼아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농박을 시작했던 강진군은 한국관광공사, 농어촌공사 등 국가 주요 기관이 주목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생활관광 브랜드로 '푸소' 를 성장시켰다.

텃밭에서 수확한 농작물로 함께 저녁 밥상을 준비하고 빛나는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며, 풀벌레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을 청한다.

건강한 식재료로 차려낸 아침을 먹고, 감자캐기, 옥수수 수확, 염소 젖 짜기, 낙지 잡기 등 각 농가 저마다의 특징이 담긴 농촌체험을 진행한다.

이제 푸소 시즌2가 문을 연다.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해 은퇴자들과 귀농인들을 맞이하려 한다. 강진군에 정착하는 '정주인구'를 늘리고, 이들이 푸소체험 운영자로 합류해 푸소체험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다양한 연령층의 체험객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다변화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후화된 푸소 농가의 시설을 정비하고 푸소체험 운영자들이 관광의 전문가가 되도록 역량강화 교육도 대폭 보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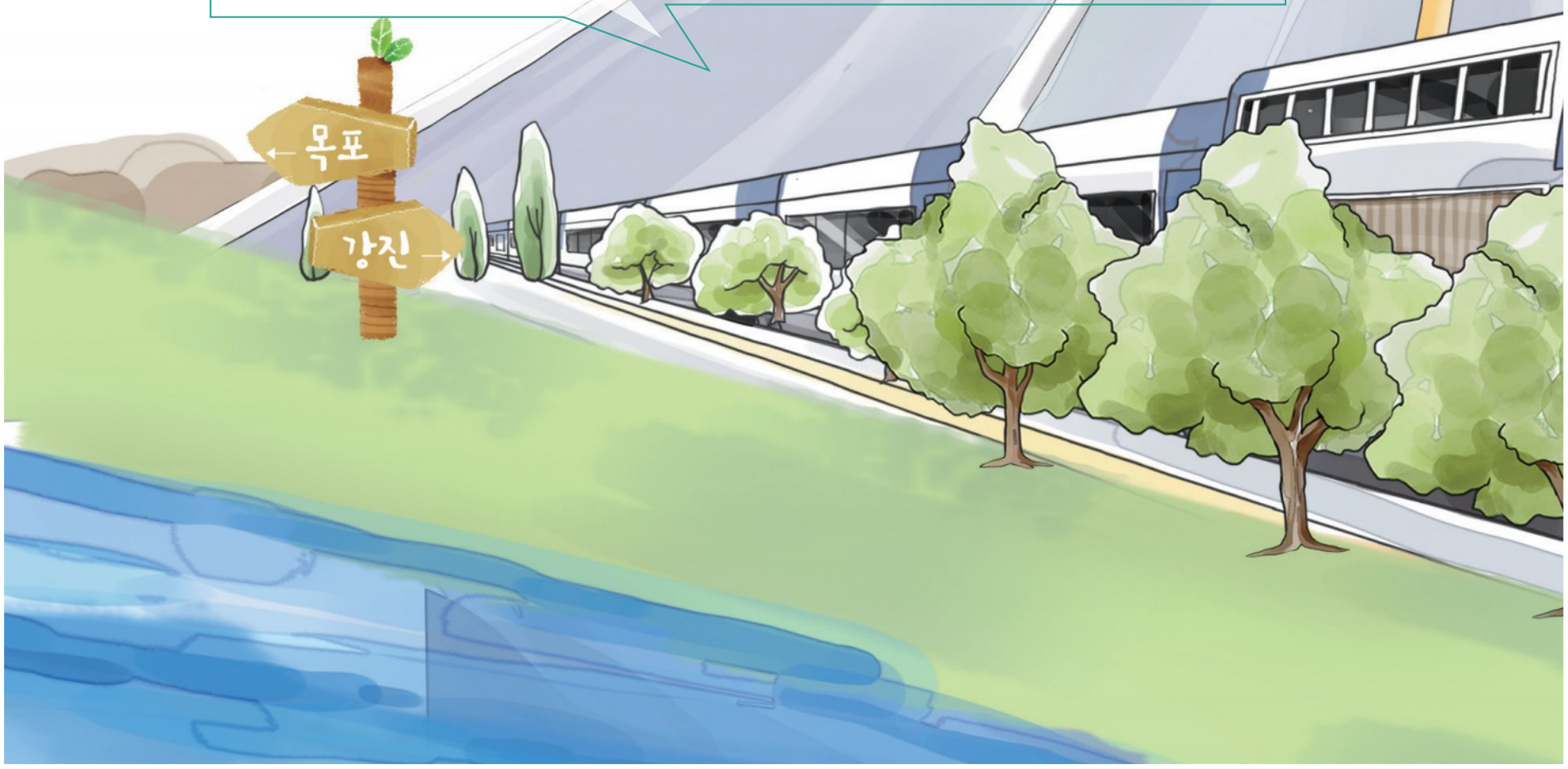
지역을 살리겠다는 행정과 지역민의 열망을 담아, 장인의 손길로 한땀한땀 채워가듯 만들어낸 '메이드 인 강진' 푸소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국가대표 관광 상품으로의 도약을 준비중이다.

문화관광벨트 조성 큰 힘

군민의 숙원인 지방도 827호선 까치내재 터널 개설공사.
군민들은 까치내재에 터널이 뚫리면 관내 지역 간 연계성이 강화되고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경제 활성화가 자연스레 따라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전라병영성 복원 및 하멜촌 조성 등과 연계돼 강진군 문화관광벨트 조성에 기폭제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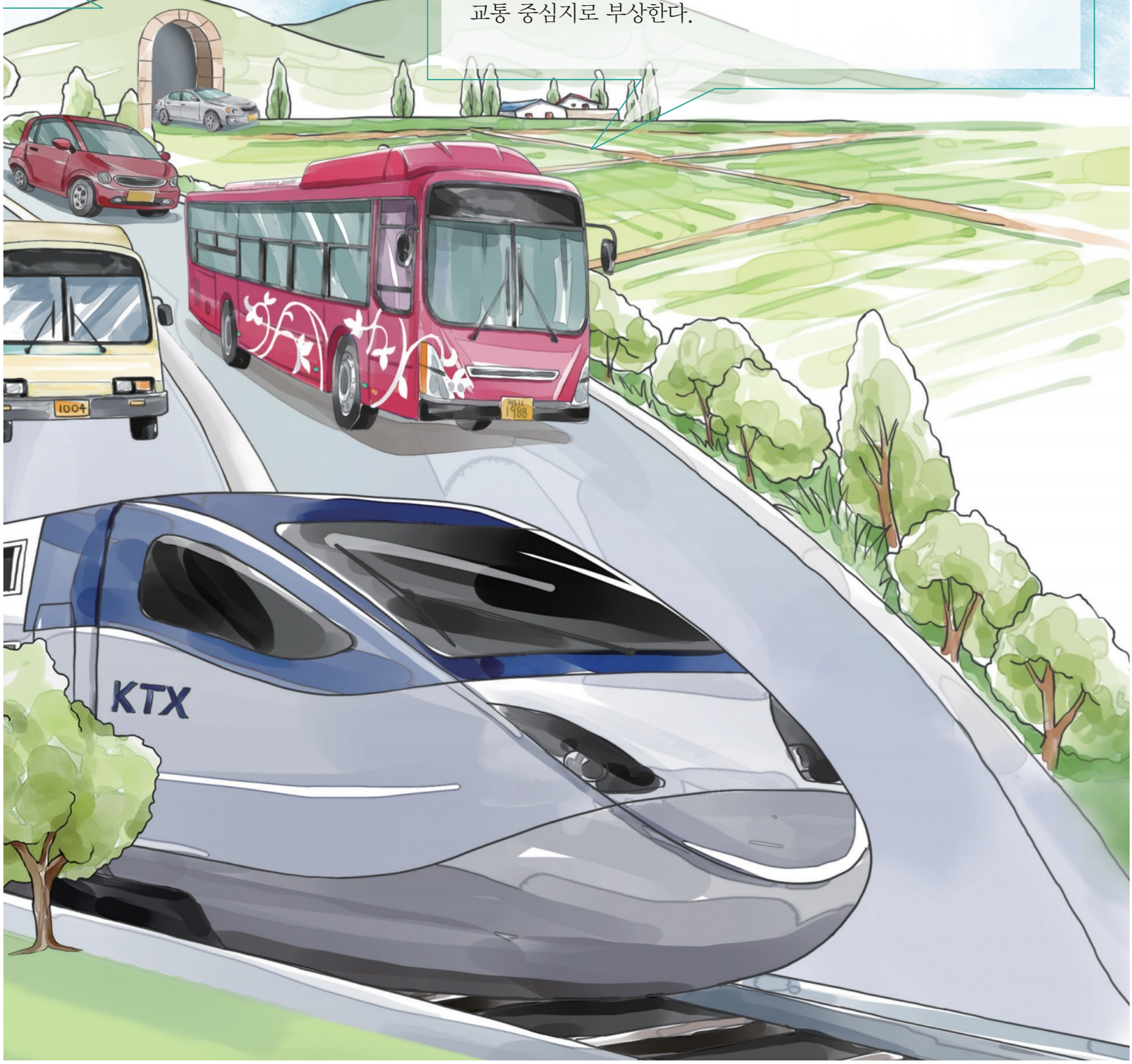
남해안철도 중심은 강진

남해안철도 중심은 강진이다. 사업은 절차에 따라 착착 진행되고 있다.
남해안철도 전체 구간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남해안 동서축 간선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6,033억원이 소요되며 지난 2015년 시작돼 2023년 안에 시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강진~광주 고속도로 2026년 개통

강진이 서남부권 교통 허브로 간다.
강진~광주 간 고속도로가 오는 2026년 개통한다.
강진~광주 간 1단계는 광주 서구 벽진동에서부터 강진 성전 구간이다. 길이는 51.11km.
이 고속도로를 통해 강진은 도시와 농촌을 연결해 서남부지역의 교통 중심지로 부상한다.



강진군 육아수당, 저출산 극복에 희망을 주다

‘출산과 전입에 영향 줬다’ 66.7% 긍정 답변
‘육아수당이 도움되서 추가자녀 계획’ 49.4%
10명중 9명 육아수당 만족…국가차원 도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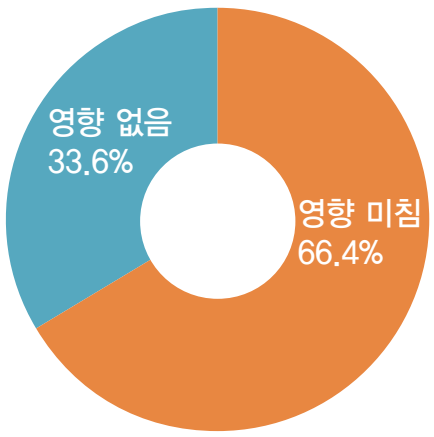
▮ 육아수당 및 출산정책 설문 성과 분석

강진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진’을 만들기 위해 민선 8기 역점 사업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이목을 끈 강진군 육아수당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강진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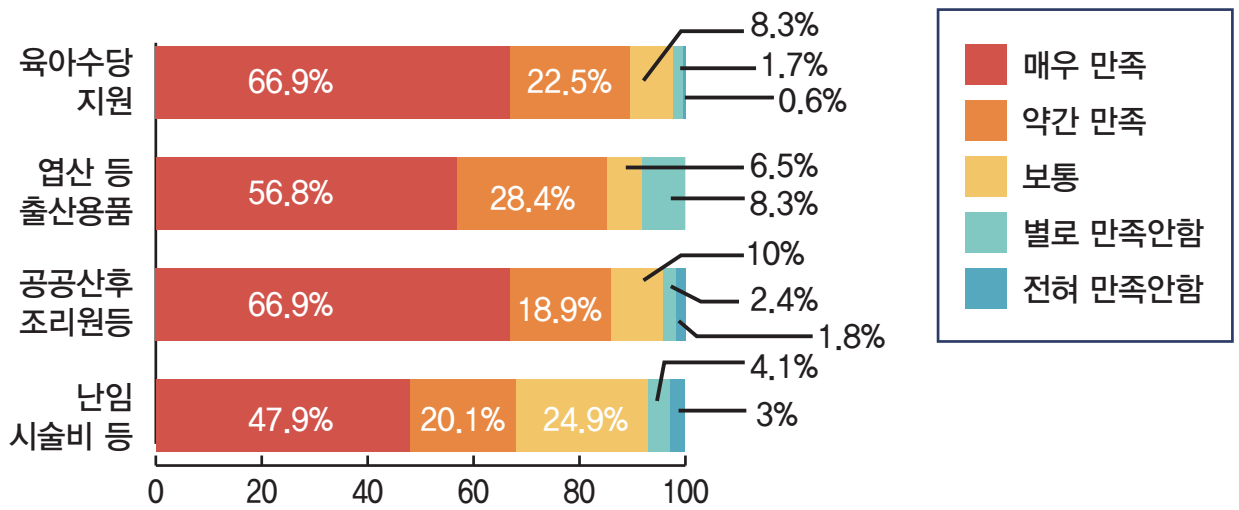
육아수당은 2022년 1월부터 출생한 아이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자녀 1명당, 월 6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생후 84개월까지 최대 5,040만 원을 지급해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 금액, 최장 기간을 자랑한다.
육아수당 시행 1년을 앞둔 시점 출산율 증가에 의미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제도 시행 전(2021년10~2022년8월)에는 출생아가 83명이었으나, 시행 이후(2022년10~2023년8월) 동 기간에는 출생아가 128명으로 무려 54.2%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남 출산율 2.2%, 전국 5.14%가 감소한 것에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상승률이다.

또한, 전입 등으로 인한 사회적 이동도 196명 감소했던 것에 비해 오히려 41명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출산율 및 사회적 이동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인구감소율이 1.64%에서 0.99%로 0.65% 저하를 보이고 있다.
육아수당의 성과분석을 위해 강진군은 육아수당 대상자와 임부등록자 169명을 대상으로 육아수당 및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다.**〈아래 그래프 참조〉**

현재 출산(전입) 육아수당 영향 여부



출산 지원정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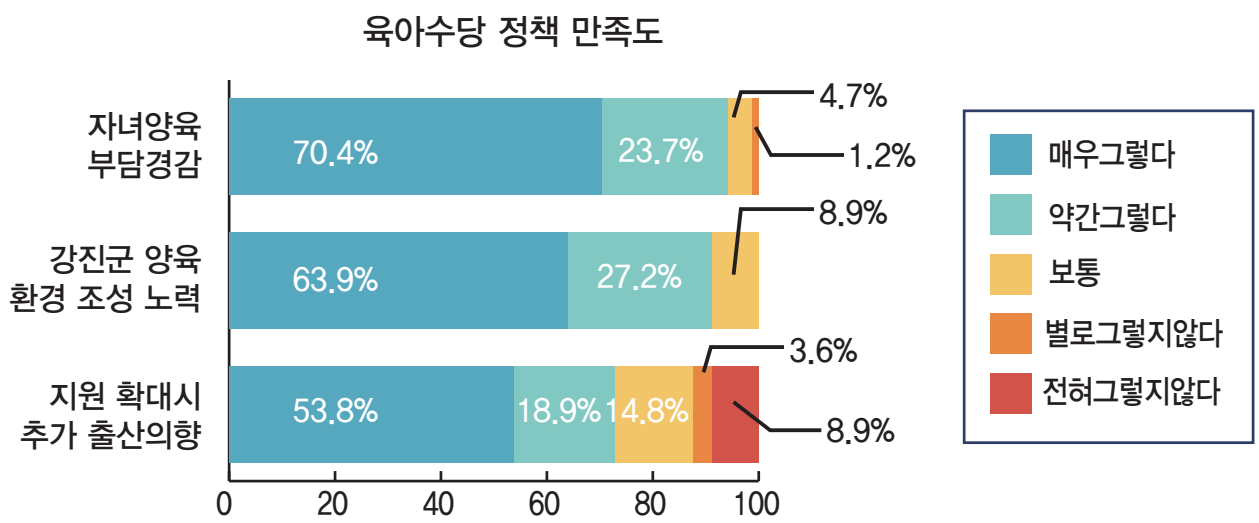
현재 출산 및 전입에 '육아수당이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이 66.4%로 강진군 육아수당 시행이 출산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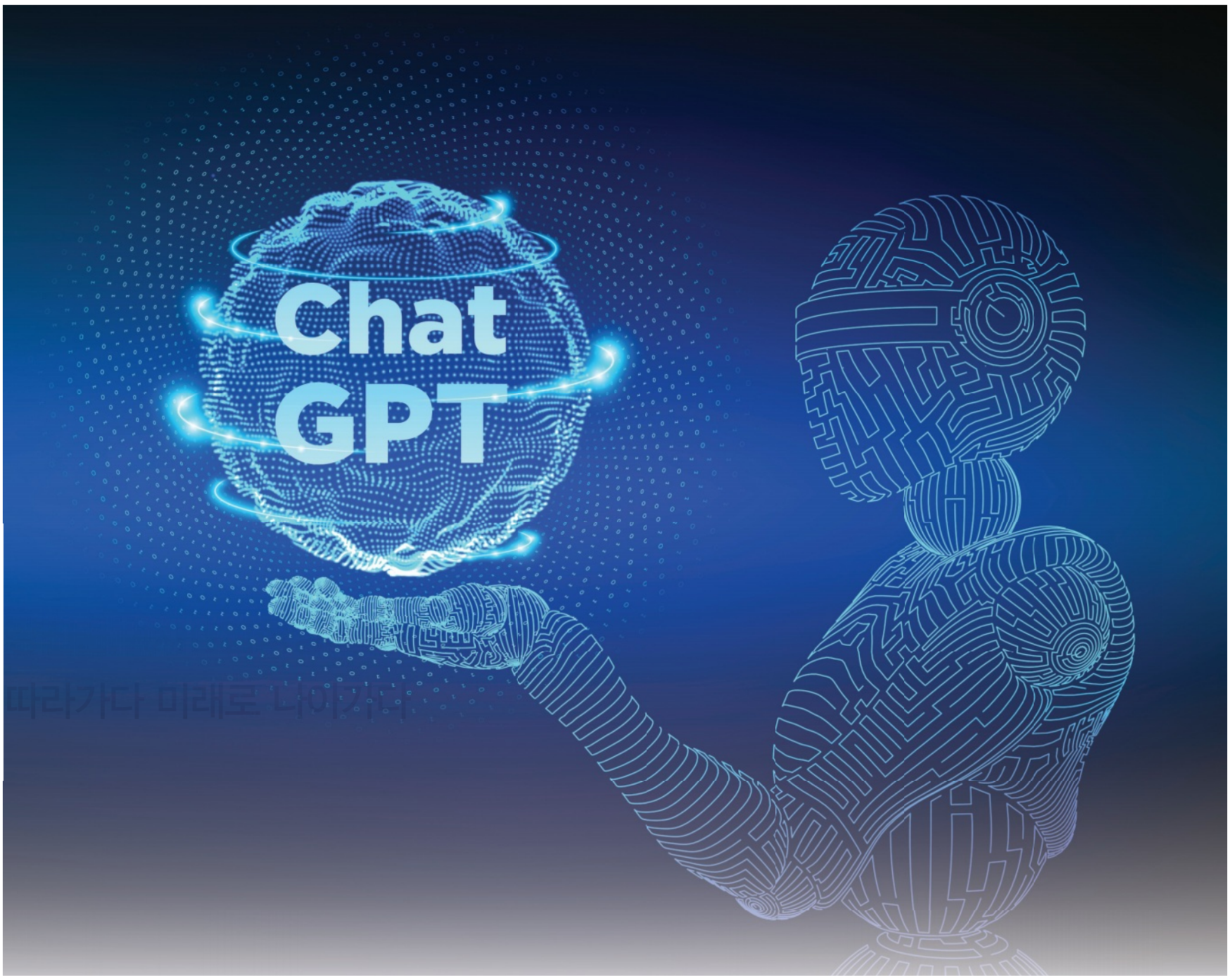
강진군 출산 지원정책 만족도는 평균 82%로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아수당은 89.4%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해 강진군 육아수당 정책의 성과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육아수당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도움, 강진군의 양육환경 조성 노력 등 대부분 육아수당 정책에 만족하고 있다. 특히 수당 및 돌봄 등 육아정책 지원 확대 시 추가 출산의향 설문에 무려 72.7%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설문조사 결과 강진군 육아수당 정책이 출산 및 전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지속적인 인구 증가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 육아수당이 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육아정책 도입에 자극제가 되어 저출산 극복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 우리 곁으로

4차산업혁명이란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자동화 등이 융합되어 사회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는 현상을 지칭한다. 스마트폰이나 이를 활용한 각종 생활환경 변화가 그 대표적인 예시라 할 수 있다.

지난 1년 동안 강진군은 4차산업혁명의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더 나은 강진의 미래를 위해 혁신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방법과 성과를 알아보려 한다.

기존에는 많은 지자체들이 홍보영상 제작이나 유튜브 영상, 그리고 SNS 활동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지금은 이런 첨단기술이 필요한 홍보물을 군에서 직접 제작하고 있어 예산절감에 도움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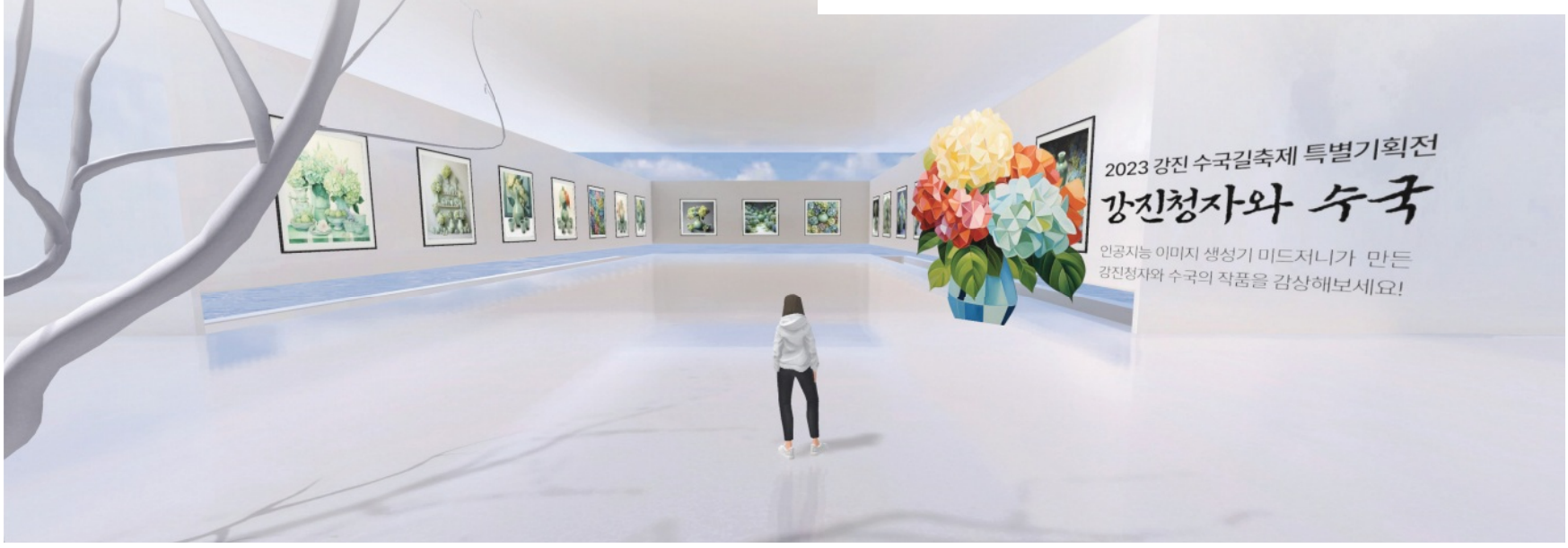
챗GPT를 행정에 접목해 기획, 홍보, 각종 행사에 사용하고 있다.

실례로 하멜촌 커피 포장재 디자인을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작하거나 군정 홍보 숏츠 시나리오 작성은 물론, 하맥축제 홈페이지 제작 등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 카카오, 네이버 스토어에 입점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어르신들을 위한 키오스크 교육이나 모바일 앱을 통한 건강 걷기 정책, 모바일 헬스케어 등 디지털기술에 친숙하지 못한 이들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강진군이 전남형 300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돼 4차산업 중심 기지가 될 기회가 찾아왔다. 버츄얼 스튜디오, 라이브커머스, 리빙랩 등과 같은 공간을 마련한다. 군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기회를 찾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혁신적인 기술과 행정을 접목해 지역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진군과 함께하는 미래, 기대해도 좋다.



하맥축제 '지역상생' 일궜다

공공배달앱 먹깨비 할인 상권 활성화
강진산 참전복 판매로 어민 시름 덜어

제1회 강진 하맥축제가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지역상생 축제' 로 자리를 잡았다.

이번 축제는 멀리 서울 수도권은 물론 부산, 대전, 대구 등지에서 온 관람객이 4만5,000여명에 이르러 첫 번째 치른 행사임에도 전국구로 이름을 높였다.

더욱이 이들이 행사장뿐만 아니라 강진읍내 상권, 푸소를 포함한 체류형 숙박, 가족단위 관광객으로 강진을 찾아 시내 곳곳이 활기를 띠었다.

축제 첫날인 지난달 31일에만 강진군 공공배달앱 먹깨비로 주문한 것이 무려 412건에 달했다. 이는 전 주 목요일 주문량에 비해 160건이나 증가한 수치다. 먹깨비 배달앱에서는 10% 할인되는 강진사랑상품권 결제가 가능해 소비자는 할인 혜택이 많아 좋고, 지역상가에서는 매출이 늘어 좋은 이중효과가 있었다.

치킨 업체 대표는 "먹깨비 주문이 많아 가게에서 이를 다 소화하지 못했다"며 아쉬워 했다. 축제장과 일반 주문이 밀려 배달이 지연되고 축제 기간 인원을 더 채용했는데도 힘들었다고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배달업체들은 강진군에서 올해 초 강진 청자축제, 봄 축제인 월출산 봄소풍, 전라병영성축제&강진금곡사벚꽃삼십리길 축제, 수국길 축제, 여름철 3대 물놀이장

행사 등으로 매출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강진군의 대표 농촌체험프로그램인 푸소 농가들 숙박 문의가 쇄도했고 행사장 인근에 마련한 텐트촌도 모두 찼다

특히 주목을 끈 것은 관람객들과 강진군민들이 찾은 강진산 참전복이다. 행사장 내에 마련된 부스에서는 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다. 사흘 동안 3,100상자 5,700만원 어치가 팔렸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 따른 경기침체, 수산물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 양식어가들은 다소나마 위로를 받았다. 전복을 활용한 퓨전 음식 역시 축제기간 동안 1,000여만원 어치가 팔려 전국에서 온 관람객들에게 강진의 맛을 맘껏 선보였다.

◇강진군 축제의 고장 일정◇

축 제 명	시 기
강진청자축제	2월 23일 ~ 3월 1일
강진금곡사벚꽃삼십리길축제	3월 31일 ~ 4월 2일
전라병영성축제	3월 31일 ~ 4월 2일
남미륵사축제	4월 3일 ~ 5월 5일
영랑문학제	4월 14일 ~ 4월 15일
강진 월출산봄소풍 가는날	4월 21일 ~ 4월 23일
보은산 수국길축제	6월 30일 ~ 7월 2일
강진하맥축제	8월 31일 ~ 9월 2일
강진마량미향찰전어축제	9월 29일 ~ 10월 1일
강진만춤추는갈대축제	10월 13일 ~ 10월 22일
불금불파	봄, 가을
마량놀토수산시장	봄, 가을
오감통 상시 공연	연중

기고 강진군민의 힘 보여줬다

김동삼
강진군 소상공인연합회장

축제는 언뜻 보기에 그냥 행사만 하는 것 같지만 그 효과는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제1회 강진 하맥축제도 기대가 컸다.

맥주 마니아들은 물론이고 멋진 공연, 레퍼토리를 가득 담은 일정에 청년들이 많이 왔다. 지역 상권의 상인들이 반기는 이유였다.

하맥축제는 알맞은 입장권 판매를 통한 맥주·공연 관람존 운영으로 맥주축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맥주 무제한 제공 및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맥주의 집중 홍보를 통해 강진을 알렸다.

아이를 동반한 부모를 고려한 피크닉존과 30동 규모의 텐트촌도 운영했다.

강진 하맥축제는 즐기는 축제를 넘어 강진군의 공공배달앱 '먹깨비 할인', 지역상가의 저렴한 할인 판매, 여기에다 푸소를 활용한 1박2일 지역 내 숙박 지원 등으로 여느 때 보다 알찬 축제가 됐다.

손님이 많이 오면 그만큼 소득이 늘어나고 지역은 활기를 띤다. 너와 내가 따로 없고 우리가 함께 강진군민이 나서서 정성을 다하면 그 성과 역시 오롯이 강진군으로 안긴다.

강진군민의 힘은 멀리 있지 않다. 서로 배려하고 아껴주면서 하맥축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여줬다. 강진군민의 힘을 보여준 멋진 날들이었다.

'불금불파' 지역 핫 이슈로

병영면 일원서 공연, 음식, 즐길거리
외국인 관광객들 연일 찾아 '북새통'

강진군이 지난 5월 처음 선보인 '불금불파'가 지역 핫 이슈로 떠올랐다.

맛의 1번지 강진 대표 먹거리인 병영 돼지불고기와 관광자원을 연결한 새로운 관광모델이다. 두 달간의 휴장 후 하반기 재개장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열린다. 추석 연휴인 29일과 30일에는 휴장한다.

특히 하반기 첫 불금불파에는 서울과 광주 등에서 관광객들이 관광버스나 셔틀버스를 이용해 강진을 찾았으며 외국인 관광객도 100명 넘게 방문해 강진의 멋과 맛을 마음껏 누렸다

군이 마련한 텐트촌에도 100명 넘게 자리를 잡아 이틀간의 여유를 즐겼다.

문화예술마켓, 친환경 자전거 여행, 한골목이야기투어, SNS미션이벤트, 추억놀이터 등에도 체험객이 몰려 들었다.

여행사를 통해 서울에서 온 미국인 관광객 스테이시 엘리시아씨는 "간혹 한국 여행을 다니는데 이 곳은 먹거리와 볼거리가 많아 더욱 마음에 들었다"며 "함께

온 친구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지인과 '불금불파'에 온 회사원 A씨 역시 "불맛이 기가 막힌 병영 연탄불고기 맛에 반했다"면서 "하멜촌 맥주도 독특하고 앞으로 몇 차례 더 올 것 같은 예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새마을부녀회를 비롯해 할머니장터, 하멜촌커피, 농부장터 등도 마련돼 강진의 맛과 친절을 정성스레 전달했다.

공연행사로는 EDM DJ와 함께하는 불금불파가 금요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MZ세대의 취향을 저격했다. 지역 청년 예술인도 공연에 나섰다.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공연존에서 활약한다.

특히 조선을 만난 시간, '조만간' 프로젝트의 하나인, 병영상인을 테마로 한 마당극 '장사의 신'이 토요일 오후 6시부터 6시30분까지 진행돼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출연 배우 10명 모두 강진군민이다.

불금불파를 즐기려면 버스 한바퀴 홈페이지에 강진 불금불파로 검색해 예약하면 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는 관광객 유치가 필수이고 축제와 관광을 함께 엮어 지역 상권까지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고 강진은 관광이 필요하다

이범우
강진읍 남일곱창 대표

지난달 31일부터 9월2일까지 사흘간 제1회 강진 하맥축제가 열렸다. 강진읍내가 온통 들썩거렸다. 서울과 부산, 대전, 광주, 여수, 순천, 무안, 대천, 멀리는 강원도 속초 등 전국에서 무려 5만명 안팎의 관광객이 몰렸다.

음식점과 호프집, 카페, 노래방까지 관광객들로 넘쳐났고 버스와 택시도 덩달아 손님들을 실어 나르느라 눈코 뜰 새가 없었다.

이 대목에서 주목한다. 왜 축제인가.

이렇게 나와 우리, 강진을 즐겁게, 풍요롭게 하기 때문이다. 강진 축제는 사시사철 지속돼야 한다고 단언한다.

군이 축제를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강진의 숙박, 음식점 등 서비스업종은 더욱 활기를 띨 것이다. 물론 강진으로, 사람이 몰리고 이들이 강진을 찾다 보면 자연스레 강진 농수축산물에 대한 구매력 또한 높아질 것이다. 선순환 구조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축제를 선택해 집중하고 관광객 유치에 목말라하는 이유다. 축제와 관광에 대한 절박함, 각종 법과 제도적 제약으로부터 오는 압박감을 버티고 경제 활성화에 올인하는 강진군 행정 최고 책임자와 밤까지 낮 삼아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까닭이다.

1131종 생태계 공원서 갈대와 함께 춤을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10월13~22일
대한민국 최고의 식생 현장 AI 종료 재개

강진만생태공원은 탐진강과 강진만이 만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둑이 없는 열린 하구로 자연적인 기수역이 넓게 형성되고, 하구 습지에 인접한 농경지, 산지, 소하천 등의 생태환경이 양호해 다양한 생태자원이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다.

또 1131종의 다양한 생물이 사는 '생태 다양성'의 보고이며 멸종위기종 수달을 비롯해 천연기념물 201-2호인 큰고니 등이 서식하고 있다.

AI로 잠시 미뤄졌던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가 오는 10월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강진만 생태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갈대축제는 '갈대로드'에 집중할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관람객이 참여하는 갈대숲 생태 탐험대와 갈대모자 패션쇼, 황금빛 갈대열차가 있다. 힐링음악과 함께 하는 갈대밭 산책, 석고마임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소통·연결·창조의 신강진
COMMUNICATION CONNECTION CREATION

강진을 사랑한다면

강진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하기

기부자 조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진이 아닌,
강진으로 기부하고 싶은 누구나

기부방법

온 라 인 : **고향사랑e음** 사이트 접수
오프라인 : **전국농협은행** 방문 접수

기부혜택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 초과분 16.5%)
답례품 제공(기부액의 30%이내)

기부금액별 혜택

(단위 : 원)

기부금액	세액공제	답례품(30%)	총 혜택
100,000	100,000	30,000	130,000
1,000,000	248,500	300,000	548,500
5,000,000	908,500	1,500,000	2,408,500

대표 답례품

※강진군청 총무과 (☎ 061-430-3462, 4)

강진군 GANGJINCITY

강진군의회, 2023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291회 제1차 정례회 폐회
2022 회계연도 결산 안건 처리

강진군의회(의장 김보미)가 제291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정례회는 강진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을 비롯해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30여 건의, 시정 및 제안 요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한편, 건설적인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민원 처리부서 체계화 ▲관광시설물 설치는 지양하고 친환경 자원 활용 관광 자원화 ▲가우도 둘레길·보행로 등 집중호우 대비 사전 점검 철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하여 강진향우회 관리 철저 ▲보건소 입구 리모델링 사업 예산 적정성 검토 ▲파크골프장 조성 신속 추진 ▲강진항 화물선 재취항을 위한 노력 ▲남포 농산물 판매장 운영 문제 등이다.

강진군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은 7,559억원, 세출결산액은 5,806억원이다.

강진군의회, 올해 더 많이 뛴다

연간 회기 10일 연장
의사일정 재배치 눈길

강진군의회(김보미 의장)가 2023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전면 개편했다.

군의회는 의원 간담회를 열고 군의회 개원 이래 관례적으로 운영되어 온 연간 회기 일정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전면 개편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에 임시회 8회, 정례회 2회 등 총 10회에 걸쳐, 80일로 운영되었던 연간 회기를 90일로 변경해, 10일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 비중 있는 의사일정들이 10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 편중되어 있었던 것을 상반기로 재배치했다.

군정질문 · 답변은 5월에 운영하되 연중 실시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했고, 2차 정례회때 진행되었던 행정사무감사는 6월 1차 정례회에서 운영하도록 결정하는 등 균형 있게 의사일정을 재편성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수용 촉구 결의안’ 채택

“정부는 법 개정안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해야”

강진군의회(의장 김보미)가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창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수용·공포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정부에 이번 개정안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는 등 농민들의 희망인 본 개정안을 정쟁의 도구로 만들고 있는 현재 상황이 매우 우려되어 긴급하게 발의하게 되었다고 김창주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의 내용은 농민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될 것”이라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

강진군의회(의장 김보미)가 제291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창주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김창주 의원은 “헌법 전문은 모든 법의 토대가 되는 헌법의 가장 첫 부분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담고 있어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창주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고히 정립해 더 이상 이를 둘러싼 갈등과 왜곡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 즉각 철회돼야”

강진군의회(의장 김보미)가 제29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창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김창주 의원은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을 승인을 규탄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실효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춤추는 갈대길 따라 피어난 꽃 사람
제8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 축제
The 8th GangjinBay Reeds Festival
2023. 10. 13.(금) ~10. 22.(일)
강진만 생태공원
10. 13 (금) 개막축하공연 (박재정, 비비지)
10. 14 (토)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10. 15 (일) 버스킹 페스타
10. 21 (토) 7080 리바이벌 레전드 가요대전 (조성모, 민해경, 김범용)
주최/주관
강진군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